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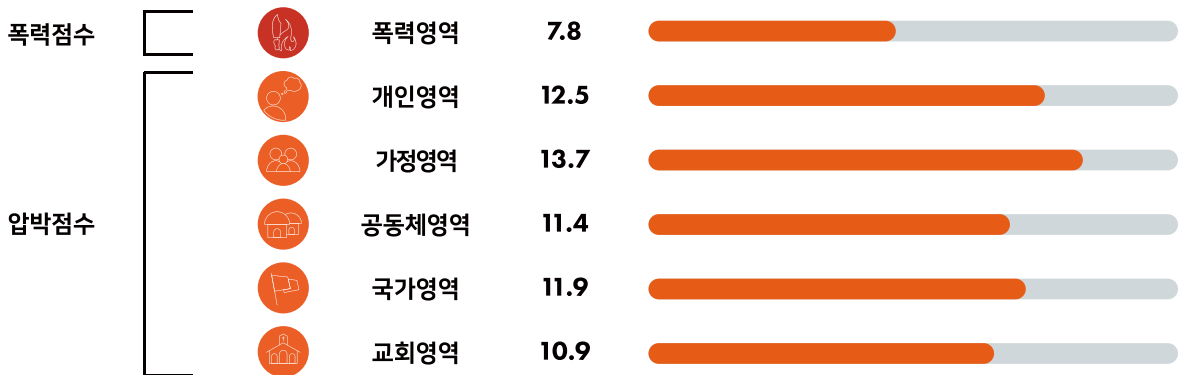
38위

이집트 (EGYPT)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대부분의 종교 자유 침해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여성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슬림 폭도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이집트 상부의 농촌 지역과 살라피스트 운동이 활발한 특정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대통령은 이집트의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만, 악한 법 집행으로 인해 이들은 공격에 취약하며, 보안 서비스가 때때로 공모하기도 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라는 가족들의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알 아즈하르 대학의 대이맘(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슬람 대학 중 하나)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국가 또한 개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안 서비스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구금한다.

이집트 (EGYPT)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인구 : 108,032,000 명

기독교인 수 : 9,797,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5,100	9.1
무슬림	97,533,000	90.3
불가지론자	597,000	0.6
무신론자	96,900	0.1

출처²

비록 이집트가 기술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의회의 권한은 항상 약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홀로 통치해왔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한적이며, 정부가 법원 판결을 단순히 무시하는 경우도 흔하다. 2014년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인권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은 반대파를 탄압하며, 수천 명의 비판자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대통령은 '사이버 및 정보 기술 범죄법'을 비준하였으며, 표면상으로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당국에 콘텐츠 차단 권한을 부여한다. 소셜 미디어는 감시되고 있으며, 정부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집트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며, 수니파 이슬람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가 되기를 원한다. 특히 많은 기독교

인들이 거주하는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 급진적인 이맘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는 상당한 분열이 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고용 차별은 여전히 뚜렷하며, 기독교인 사업체는 보이콧 당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 혐의의 소문이나 새로운 교회 개설로 인해 폭도들의 공격에 취약하다. 보통 지역 당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화해 세션'을 사용하지만, 이는 종종 무슬림 가해자가 자유롭게 되고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면책 문화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집트인의 90%는 무슬림이며, 거의 모두가 수니파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집트 상부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콥틱 정교회 신자이다.

중동 염려(Egypt 프로필)에 따르면: "이집트의 2014년 헌법은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이슬람 법의 원칙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임을 명시하고 규정에 따라 종교적 실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아브라함계 종교 신자들에게만 한정된다. 비록 종교 개종이 성문화된 법률에서는 금지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허용되지 않는다."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²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3년 3월 접속)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상부 이집트는 이 나라의 남부 지역으로, 북부보다 더 이슬람적으로 보수적이고 급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건과 폭도 공격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미니아 주는 인구 대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은 곳이다. 특히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마을과 도시에서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공격을 수행한다.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세력은 북동부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만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2023년 2월 말, 엘시시 대통령은 시나이 지역에서 테러리즘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Ahram Online, 2023년 3월 2일).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집트 기독교인의 90%는 콥틱 정교회에 속해 있다. 또한 확립된 개신교와 가톨릭 교파도 존재합니다. 더 포괄적인 국가 서사에도 불구하고, 콥틱 기독교인들은 교육과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측면을 방해하는 정부 입법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

들의 역사적인 존재와 수백만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 인해 국가와 무슬림 다수에 의해 용인되어 왔다.

역사적인 기독교인들은 주변 공동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표적이 된다. 건물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소문, 신성 모독 혐의(소셜 미디어에서) 또는 기독교 남성과 무슬림 여성 간의 관계는 폭도 폭력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인 피해자들이 관습적인 화해 회의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 무슬림 가해자들이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폭력적인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다. 친척들은 이슬람 신앙을 버린 개종자들을 구타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처벌한다. 또한, 이들은 이집트 정보 기관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며, 정기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구금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나라에는 여러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단이 있으며, 일부는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2세 또는 3세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 사회와, 덜한 정도이지만, 콥틱 정교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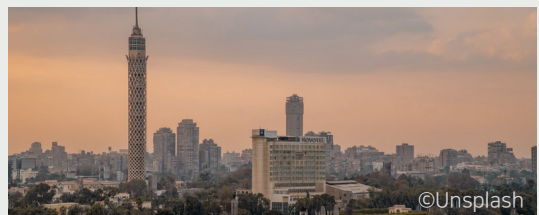
이슬람 억압

기독교인들은 종종 국가와의 거래에서 이등 시민처럼 느끼고 차별을 겪는다. 국가는 기독교인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시행하는 것을 꺼려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장 이슬람 단체에 의해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주요 폭력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그러한 대규모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급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공격한 사례가 있다.

독재적 편집증

이집트는 오랜 독재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집트는 전 육군 참모총장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민간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이 정부는 현재의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적 다원주의를 낮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불우한 배경의 기독교 여성들은 이슬람 네트워크에 의해 결혼을 목적으로 한 그루밍, 강간 및 강제 개종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일은 주로 농촌 및 빈곤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경찰의 대응은 종종 공모하거나 무관심하며,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기독교 소녀들,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가정 출신의 소녀들은 결혼으로 유인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집에 갇혀 신체적으로 구타당하거나 심지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해당할 수도 있다. 결혼한 경우, 쉽게 이혼당하고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강제 종교 복장 규정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표적 유혹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인이 고위 군사 또는 정부 직책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며, 그들의 신앙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역학의 압박으로 인해 가정 폭력과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보고된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젊은 남성들을 재정적 인센티브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 - 대부분 남성 - 은 특히 기독교인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어 권리 침해(살해 포함)에 취약하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업/직업/일자리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8	68
2023	35	68
2022	20	71
2021	16	75
2020	16	76

이집트의 점수는 동일했지만, WWL 2023에서 점수가 더 높은 국가가 증가하여 순위가 하락했다. 폭력 점수가 7.0점에서 7.8점으로 상승했지만, 압박 점수는 평균 0.1점 하락하여 12.1점이 되었다. 기독교인 차별과 종교 자유 침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조차 무슬림 폭도들의 폭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보안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2년 12월: 무슬림 폭도들이 나일 삼각주 지역의 한 교회 지붕 교체를 폭력적으로 저지하며, 교회 건물과 여러 콕트 가옥을 공격하고 손상시키고 일부 콕트 신자들을 부상시켰다.
- 2023년 5월: 한 콕트 건축가가 불도저 운전자에 의해 치여 사망했으며, 운전자는 그의 신앙 때문에 공격했다고 자백했다.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이는 기독교인을 공격한 개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2023년 6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수많은 모욕에 대응하여 상부 이집트의 한 콕트 학생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했으나, 그의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게시되었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여러 젊은 무슬림 남성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대학은 종교 경멸로 인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결국 퇴학시켰다. 이후 그는 계속되는 살해 위협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이주해야 했다. 그의 사건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를 급증시켰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들	구금된 기독교인
2024	3	3	44	25
2023	5	1	19	4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다. 전체 결과는 전체 국가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징적인 대략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2008년 카이로 행정법원의 주요 판결은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특정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이슬람 원칙에 위배되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기독교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거나 폭도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다. 신성모독 혐의는 쉽게 제기될 수 있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한다. 개종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은 매우 높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개종 소문만으로도 폭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개종은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며, 종종 가족들은 개종자들을 추방하거나 개종을 철회하도록 강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한다. 상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십자가와 같은 눈에 띄는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아니면 모든 콕트 기독교인들은 교회 출입을 위해 인식용으로 팔에 문신을

로 십자가를 새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공격자들에게 쉽게 식별될 수 있게 만든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분증에 종교를 변경할 수 없다. 아버지의 등록된 종교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적용되어, 개종자의 자녀는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기독교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가족들은 개종자에게 이혼하라는 압력을 많이 가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개종자는 샤리아법에 따라 상속권과 후견권을 잃게 된다. 교육 시스템에서 이슬람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콕트 기독교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기독교 종교 수업을 받지만, 여전히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이슬람 문학과 꾸란을 공부해야 한다. 때때로 기독교 종교 수업이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경우 기독교 학생들은 이슬람 종교 수업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일부 사람들만 재정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공동체 영역

고용 차별이 널리 퍼져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보 기관에 고용되지 않으며, 군대의 고위직에서 복무할 수 없고, 정부 고위직에서도 과소 대표되고 있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 국가 축구팀에 기독교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국가나 민간 고용주에게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과 차별은 특히 상부 이집트의 가난하고 농촌 지역에서 더 심하다. 지역 이슬람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이 전도하거나 이슬람을 불경스럽게 대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슬람을 모욕했다거나 무슬림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여러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았다. 농촌 지역에서는 경찰의 존재와 정부의 통제가 덜 엄격하며, 폭도 공격은 종종 처벌받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안 및 정보 기관이 개종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개종자 그룹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려고 한다.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들, 특히 기독교 여성들은 성희롱에 특히 취약하다.

국가 영역

헌법 제64조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공인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지위법과 종교 사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경우에는 샤리아법이 적용된다. 개종자가 종교 등록을 변경하려고 하면, 당국은 그들을 감시하고 신성모독법에 따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신성모독 혐의와 정부 비판 발언은 체포, 고문 및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개종자 학대는 가족 문제로 간주되며, 처벌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교회 영역

교회들은 개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전도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난은 공격이나 "안보상의 이유"로 교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교회

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사의 일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복 경찰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발언을 감시하기도 한다. 교회는 2016년 교회 건축법에 따라 교회 건물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 반대, 심지어 폭력에 직면한다. 그러나 법 도입 이후 3,000개 이상의 교회가 합법화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집트 역사상 전례 없는 단계로 간주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행사를 야외에서 비밀리에 개최할 수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이슬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조직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집트는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집트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이 종종 처벌받지 않는다 (ICCPR 제2조)
- 기독교인들이 임의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공적 및 사적 고용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ICCPR 제26조)
- 교회는 새로운 건물 건설 허가 및 법적 인정을 위한 허가를 받는 데 여러 장애물에 직면한다 (ICCPR 제21조 및 제26조)
- 특히 농촌 지역의 기독교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당할 수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기독교인은 테러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1)

이집트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집트에서 편협, 차별 및 박해를 겪는 다른 종교 집단으로는 시아파 및 수피 무슬림, 바하이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된다. 시아파 무슬림은 특히 수니파 무장단체의 표적이 되어 공개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위험하다. 몰몬교, 바하이교, 여호와의 증인은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예배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집단의 선교 열정과 이에 따른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신자들은 국가 공무원과 사회, 기독교 이집트인들을 포함한 사회의 적대감을 겪는다. 또한, 무신론자들은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경우 침해를 당하기 쉽다.

오픈도어의 이집트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와 기타 협력 사역들과 협력하여 이집트 전역에 퍼져 있는 다양한 사역 센터를 통해 모든 교파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사역, 문해 교육 및 의료 봉사과 같은 다양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를 섬기고 있다.

